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제103(2014)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지적하신것처럼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헌혈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에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와야 한다.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 일 성 주 석 께 서 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자신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 당, 사회단체 대표자편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

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진촉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대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원장이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장을 제시하심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적이 없으시였다.

《 김 일 성 1994. 7. 7. 》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남기신 이 친필에는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오신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 위인의 불멸의 한생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

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라는 일념을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 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돌이켜 보면 주 체 85(1996)년 11월 24일,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말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절하게 울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신다고 해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철의 의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는 확고한 결심이 맥박치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운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진촉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장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첩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위업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제89(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이 자주적 제도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북남관계에서는 놀라운 사변들이 려이 창조되었다.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 동로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어 허심탄회한 대화로 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새차게 울리고있다. 자주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속에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의 넓은 길이 열리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와 애국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

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 위인 이신 경 애 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시였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분렬주의호전세력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자주통일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그이께서는 이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통일 69년이 되는 이해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새해에 조국통일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삼천리강산을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된 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자!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과 기자가 나눈 대담 *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

근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렬의 비극의 역사가 이 땅우에 한조한 조 흐르고있다. 또다시 밝아온 새해의 이 아침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어떻게 하나 올해에는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오늘날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시련을 겪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파국상태에 처해있고 전쟁위협만이 나날이 커지고있다.

현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민족주체의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시대를 계속 힘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며 전적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서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은 다름아닌 조선민족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위해서 내발할수는 없으며 외세의와 공조는 이 땅우에 분렬과 대결의 칼바람만 휘몰아치게 할뿐이다.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철두철미 민족내부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단

조국통일의 주체의 위력을 강화할 때 자주통일위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리였다. 남조선에서도 지난 시기 일부 통일운동단체들에서만 벌리던 조국통일운동에 노동자, 농민, 예술인, 종교인,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대중적으로 참가하여 통일열의를 드높였다.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금강산을 비롯한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북과 남의 겨레가 터치는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의 구호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통일운동세력의 원대와 단합이 강화되었다. 말그대로 7천만이 통일운동의 주인이 되어 목소리를 합치고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격동의 나날들이였다. 그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추동되고 6.15통일시대는 앞으로 전진하여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안파의 분렬주의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대진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갔다.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불법침을 노린 핵전쟁공격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았으며 유엔을 비롯

한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에 대한 비방과 모해증상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남조선에서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자주권을 요구하는 모든 통일애국세력이 《종북세력척결》광란국속에 박해와 탄압을 받고있으며 해마다 열리었던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들이 여러해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대처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과 노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적단결은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홀어지면 패하고 못지면 이기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이는 조국통일운동에서도 결코 예외로 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투쟁의 주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반대편항을 강화하여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에 자주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리 어 금

기 자: 경 애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겨레는 지금 커다란 환희와 기쁨에 휩싸여 있다.

심 영 철: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조국통일운동과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이며 대법한 립장과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밝혀주신것은 남조선에 물론 주변나라들에서까지 비상한 관심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YTN》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전문 그대로 보도하고 표현과 단어 하나까지 따져가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이 육성신년사를 통해 직접 남북관계개선장을 표명하였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신년사에 대한 내외의 기대를 잘 보여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우리 민족이 외세가 강요

한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지도 장장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갈라졌던 나라와 민족들이 통일을 이루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겨레가 아직도 분렬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은 참으로 수치가 아닐수 없으며 커다란 비극이다.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기자: 북과 남이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도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아닌가.

심영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그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추동하는 경이로운 사변들이 이룩되었다.

수십년간 막혔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백두산에서 제주도에도 이르기까지

온 겨레가 서로 열싸안고 통일만세의 환호성으로 삼천리를 진감시켰다.

북남사이에는 수십차례에 걸치는 당국회담 등 여러 분야의 회담들이 열리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6.15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런데 2008년 남조선에 등장한 리명박보수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를 《폐쇄된 민족주의》라고 중상모독하면서 외세와의 《공조》에만 매여달려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펼침으로써 북남관계를 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로 몰아갔다. 남조선의 현 당국도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다 《국제공조》를 청탁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조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를 저지르고있다.

기자: 하여 지금까지도 북남간의 대결상태는 해소되지 못하고있으며 이 땅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지 않가.

심영철: 전쟁을 막고 이땅의 평화를 수호하자고 해도 그렇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서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은가. 그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우리 민족만큼 바라지 않으며 《국제공조》나 《혈맹》을 떠들어대도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가져다줄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리치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하여 무모한 동족대결소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야 하며 이것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요구에 부합되는 길이라 는것을 특독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펼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이다.

기자: 좋은 말씀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성명을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3일 발표하였다.

조국통일을 바라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을 실현해야 할 주인도 바로 조선민족이며 통일된 조국강도에서 살아갈 민족도 다름아닌 우리 조선민족이다.

통일문제는 철저히 자주적 원칙에서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

력이 확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 길만이 조국통일의 길이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세당은 미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동족을 적으로 대하며 북침책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이처날뛰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었다.

지나온 역사는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은 민족분렬의 비극과 고통만을 더해주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며 핵전쟁

의 검은구름만을 불러올뿐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외세의존과 전쟁연습에 광분할것이 아니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한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철두철미 민족내부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단

보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통일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원칙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외세의존이 초매할것은 대결의 격화이고 분렬의 심화라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

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다 《국제공조》를 청탁하여야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현실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자주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펼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